

만인을 위한 공연 꽃 피우는 美 유일 국립 아트센터

아트센터,
도시의
브랜드가 된다

소문난 공연장을 찾아서
-미국편
<18> 케네디공연예술센터



워싱턴 D.C.=박진현 문화선임기자

상공에서 내려다 본 케네디공연예술센터.

“지난 수세기동안 우리의 도시들은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극복해왔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정치와 전쟁에서 거둔 승리나 패배가 아니라 인간의 정신을 정화시킨 노력이다.”(존 F.케네디 대통령)

워싱턴 D.C의 젓줄 포토맥강이 한눈에 보이는 곳에 자리한 케네디공연예술센터(Kennedy Performing Arts Center-케네디센터)에 들어서니 약 2m 50cm 높이의 거대한 흉상이 눈에 띄었다. 미국의 제35대 대통령인 존 F. 케네디대통령(1917-1963)이다. 워싱턴 D.C의 ‘문화 1번지’로 불리는 아트센터에서 만난 대통령 얼굴은 웬지 어색하게 느껴졌다. 더러 유명 음악가나 지휘자, 공연장에 ‘통큰 기부’를 한 자선사업가들의 동상은 본 적이 있지만 정치인을 ‘모셔놓은’ 곳은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하지만 케네디센터의 ‘과거’를 듣고 나니 낯설게만 보였던 조각상에 눈길이 갔다.

워싱턴 케네디센터는 미 연방정부 최초로 국고 4300만 달러를 들여 건립한 국립아트센터다. 케네디 센터는 1971년 9월 8일 오페라 극장에서 레너드 번스타인(뉴욕 필하모닉 지휘자)이 작곡한 ‘미사’의 세계 초연으로 개관 공연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이튿날 뉴욕 타임스 1면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오늘 밤 미국의 수도는 7000만 달러짜리 존 F 케네디 아트센터의 화려한 개관과 함께 드디어 문화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포이어로비의 중앙무대선

1년 365일 무료 공연

‘살아있는 대통령 추모관’

연간 2000만명 즐겨

워싱턴 케네디센터는 미 연방정부 최초로 국고 4300만 달러를 들여 건립한 국립아트센터다. 케네디 센터는 1971년 9월 8일 오페라 극장에서 레너드 번스타인(뉴욕 필하모닉 지휘자)이 작곡한 ‘미사’의 세계 초연으로 개관 공연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이튿날 뉴욕 타임스 1면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오늘 밤 미국의 수도는 7000만 달러짜리 존 F 케네디 아트센터의 화려한 개관과 함께 드디어 문화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이날 개관식은 어느 공연장의 오프닝과는 사뭇 달랐다. 케네디센터의 역사적인 서막을 알리는 축하의 무대였지만 여기 저기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들이 눈에 띄었다. 연주가 끝난 후 객석을 향해 인사하는 지휘자 번스타인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다.

올해로 개관 40주년을 맞은 케네디센터는 미국 최대의 아트센터이자 ‘살아있는 대통령 추모관’(living memorial)의 면모를 자랑한다. 개관 이래 현재까지 매년 2000여 회의 공연이 열리고 200만 명의 관객이 찾는 문화명소다. 단순히 공연장을 둘러보는 백스테이지 투어와 인터넷 웹사이트,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 공연을 즐기는 간접 애호가들까지 합치면 케네디센터의 관객은 약 2000만 명에 이른다.

링컨 광장을 중심으로 3개의 독립공연장이 ㄷ자 모양으로 배치된 뉴욕 링컨센터(본보 11월3일자소개)와는 달리 케네디 센터는 모든 공연장이 한 건물 내에 들어 있다. 포토맥 강에서 볼 때 왼쪽부터 아이젠하워 시어터(1163석), 오페라 극장(2300석), 콘서트홀(2400석)이 나란히 놓여 있고, 강변쪽으로 길이 192m, 폭 18m의 길다란 그랜드 포이어 로비(Grand Foyer)가 이들 세 극장을 연결한다.

오페라극장은 워싱턴 국립 오페라와 케네디센터 영예의 음악인상(Kennedy Center Honors)의 전용무대로 매년 오페라, 발레, 대형 뮤지컬 등이 공연된다.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안방’인 콘서트홀은 보스턴의 필렌 재단이 기증한 4144개의 파이프 오르간을 갖추고 있다. 아이젠하워 시어터에서는 주로 연극과 소규모 뮤지컬, 오페라, 발레, 현대 무용이 공연된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일상을 문화로 정화시키자고 주장했던 케네디 대통령의 꿈은 ‘만인을 위한 공연’(Performing Arts for Everyone : P.A.F.E)에서 꽃을 피우고 있다. 케네디센터는 일년 365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오후 6시 1층 그랜드 포이어로비의 중앙무대에서 무료로 ‘밀레니엄 스테이지’를 갖는다. ‘만인을 위한 공연’이라는 타이틀로 열리는 밀레니엄 스테이지는 예술가들에게는 발표무대인 동시에 워싱턴 D.C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는 수준높은 공연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열린 축제’다.

케네디센터의 홍보디렉터 패트리샤 오켈리(Patricia O'Kelly)는 “우리의 미션은 모든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예술을 접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매회 평균 500 명이 찾는 밀레니엄 스테이지는 이제 워싱턴 D.C 뿐 아니라 미국을 상징하는 문화브랜드로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 연방정부가 전례를 깨고 거금을 지원한 이유는 생전 아트센터 건립에 헌신했던 케네디 대통령을 추모하기 위해서였다. 케네디 대통령은 시민들에게 오페라, 클래식, 재즈, 연극, 뮤지컬 등 다양한 예술을 선사하는 ‘전천후 공연장’ 건립을 위해 재임시절 기금마련에 팔을 걷고 나섰다.

사실 아트센터를 처음 제안한 사람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었다. 1958년 그는 미국의 수도에 걸맞는 국립문화센터(National Cultural Center)를 워싱턴 D.C에 지어야 한다고 신중 조례에 서명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아트센터 건립을 위해 발로 댄 사람은 케네디 대통령이다. 그는 1963년 미국 굴지의 기업 총수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배풀면서 국립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기부해달라고 부탁했다. 세계 각국의 수도에는 아름다운 공연예술센터가 있는데 미국에만 없는 건 ‘자존심 문제’라며 설득했다. 이를 두고 워싱턴 포스트 등 언론에서는 “대통령이 세일즈맨처럼 집요하게 군다”고 비교기도 했다.

기업인들과의 오찬 모임이 있었지만 불과 몇 달만에 그는 암살당하고 말았다. 새 공연장은 케네디 대통령을 추모하는 건축 프로젝트로 바뀌었다. 화려한 외관을 뽐내는 다른 아트센터와 달리 건물 전체가 기념관 같아 보이는 것도 이



워싱턴 D.C의 문화명소인 케네디센터는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공연장을 소개하는 ‘백스테이지 투어’를 운영하고 있다. /워싱턴 D.C=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한국농어촌공사는 설계에서 준공까지
순수 우리 기술력으로 이루어낸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녹색희망 새만금

KCS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워싱턴 D.C의 포토맥 강 주변에 들어선 케네디 공연예술센터의 전경. 올해로 개관 40주년을 맞은 케네디센터는 모든 계층의 시민들이 자유롭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국립공연장 다용 면모를 과시한다.

<워싱턴 케네디센터 제공>